“종헌·종법 개정안, 절차 따라 심의”

태고종 법규위, 8월 24일 입장문
원융회 문제 제기에 “자료 왜곡”
연임제·선거제도 개편 등 심의
“폐기 내용으로 종회 상정 없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지공 스님, 이하 법규위)가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 등이 담긴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원융회(회장 일로 스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종도발안제’에 따라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초안”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법규위는 8월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법규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개정안이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중앙종회 심의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법규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종도발안제’에 따라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초안이다. 이후 법규위원회와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제출된 회의자료 가운데 △연임제 개헌 △지방종무원장선거법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등 3개 안건을 선정해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종회의장에게 보고됐다.

법규위는 “법규위원회에서 확정한 최종 개정안에는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이 삭제됐으며,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중앙종회에 이송돼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안 단계의 회의자료를 확정된 개정안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당한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초안 단계의 회의자료를 왜곡하는 행위는 종무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종단 발전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연임제 논의는 제15대 중앙종회와 제27대 집행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돼 온 사안으로, 종단의 오랜 관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종도들의 공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규위의 설명이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종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은 연임에 출마하는 종무원장이나 지방종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는 지방종회의원 선거를 종무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인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도록 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규위는 원융회가 최근 종도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초안 단계의 내용을 원융회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장해 종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원융회가 문제 제기한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내용이며 중앙종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위는 “금번 종법 개정안은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심과 주관적 주장을 거두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최종적인 개정 여부와 내용은 중앙종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후보 스님들, 기후위기 대응 종책 ‘공감’

8월 26일, 불교환경연대 답변 공개
경우 스님, ‘교육’ 종법령 개정 추진
진우 스님, 기후대응전담부서 설치


경우 스님


진우 스님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들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 7대 종책 과제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26일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3번 진우 스님에게 전달한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정책 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8월 16일 각 후보에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교계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 △교구본사별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녹색사찰 인증 제도 도입 △사찰림 공익 가치 증진 △AI시대 불교적 환경 윤리 정립 △기후위기 시대 불교적 수행의 7대 종책 과제를 제안했다.

불교환경연대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경우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녹색사찰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찰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2045’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종법 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님·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내용 수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계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진우 스님은 사회부 내 기후대응 전담 부서를 별도 설치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교구본사 환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차원의 ‘탄소중립 2045’ 계획뿐 아니라 교구본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사찰림 관련 현안을 주요 종책 공약으로 꼽았다. 사찰림의 공익 가치 증진과 수행 공간 보호를 우선순위로 삼고, 산림 치유와 명상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희 기자

천태종 교육부장에 광언 스님 임명

8월 20일, 일부 인사 단행


광언 스님


경혜 스님

천태종이 총무원 교육부장에 광언 스님을, 경주 청강사 주지에 경혜 스님을 임명했다.

천태종은 8월 20일 광언 스님(횡성 광제사 주지)과 경혜 스님(총무원 교무부장) 등 총무원과 말사 주지 일부 인사를 단행하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교육부장 광언 스님은 불교천태중앙박물관장도 겸임한다.

이와 함께 교무부 의전국 부책임부전에 용덕 스님, 부전에 수종 스님, 기도실에 덕일 스님, 사회부 복지국에 성공 스님, 영농국 과장에 상력 스님, 재무부 회계국 국장에는 무성 스님, 제등국 국장에 정명 스님, 감사원 국장에 자운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임은호 기자

네팔 홍수 피해에 애도·위로

조계종·진각종·태고종, 8월 27일
“신속한 구조…일상 회복” 기원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8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며 “네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조와 구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산하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긴급구호를 위한 모금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자비의 손길이 상처받은 네팔 곳곳을 정성껏 어루만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긴급구호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8월 26일(현지시간) 대규모 홍수로 네팔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네팔TV 페이스북

같은 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애도문을 통해 “대자대비 부처님의 보살핌과 전 세계 불자들의 인연공덕,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구호와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고종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계 기업은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현지 상황과 구조 진행 경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진우 스님도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경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의료 지원, 식수와 주거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복구와 재건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도 입장문을 통해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생명의 소중함에는 차이가 없다”며 “희생된 모든 영가가 평안하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며, 네팔 국민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길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기도했다.

앞서 8월 26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외국인을 포함해 48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임은호·김내영 기자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의상암 소실

8월 20일 화재로 4개 동 전소
현장점검…종단 차원 대책 마련


화마를 피한 의상암 산령각.
사진 제공=법화종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 총본산 통영 안정사 산내암자인 의상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이 소실됐다.

안정사(주지 원담 스님)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3시 20분께 통영시 광도면 벽방산에 자리한 의상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건물 5개 동 가운데 대웅전과 칠성각 등 산령각을 제외한 4개 동이 전소됐다. 내부에 있던 불상과 탱화, 현판, 법구와 비품 등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의상암에는 상주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길이 벽방산 일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피해도 막았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의상 대사의 수행전승이 깃든 도량이 큰 피해를 입어 비통한 마음”이라며 “관계 당국의 원인 조사와 피해 수습에 적극 협조하고 의상암의 법등을 다시 밝히기 위해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歸依戒 五戒

2026. 10. 10 음 8.30
토요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정관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원오사 주지)
덕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재무국장, 해동용궁사 주지)
성광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화국장, 국청사 주지)

수계비 1인 5만원 복장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의 : 사무국 051) 501-7554

행사 당일 YouTube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 방법
1.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YouTube’ 검색 후 설치
2. 검색창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